# 열흘만에 또 태풍…전남 관통 '비상'

## 강풍 동반 중형급 '미탁' 갈수록 세력 커지며 내달 2일 남해안 상륙
## 올해만 7번째로 60년만에 최다…농가 근심 커지고 가을축제 차질

광주·전남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제17호 태풍 '타파'가 물러간 지 열흘만에 덩치를 부풀린 '중형급' 가을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은 '타파'보다도 세력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피해 복구를 마치지 못한 지역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 기간 광주에선 '추억의 충장축제', 전남에선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목포항구축제', '강진청자축제', '곡성심청축제' 등 다양한 가을축제도 예정돼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에 따라 소독약제 등을 집중 살포 중인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28일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8호 태풍 '미탁'이 내달 2일 남해안으로 상륙해 전남을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고 29일 밝혔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중심기압 980 hPa, 중심에서는 초속 29㎧의 강풍이 불고 있다. 태풍 미탁은 30일 오후 3시께 초속 39㎧의 강풍을 동반한 강한 중형태풍으로 발달한 뒤 세력을 거의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 미탁이 29일 현재 시속 21km의 속도로 서북서쪽으로 이동하다 점차 방향을 북서쪽으로 틀어서 타이완 북동쪽 해상을 지나 10월 2일 오전 9시께 서귀포 서북서쪽 120km 부근 해상에 다가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상청은 2일 오후 3시께 목포 남서쪽 150㎞ 해상을 통과 후 남해안으로 상륙해 전남 등 한반도 남쪽을 관통한 뒤 3일 오후 9시께 독도 서쪽 90km 부근 해상으로 진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미탁'의 남해안 상륙을 예상하는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수축하지 않은 채 일부 유지되고 있고, 현재 태풍 발생지역에 동풍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상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데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크게 확장하는 한여름에는 중국쪽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수축하는 가을에는 일본쪽으로 향한다. 이번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기에 접어들지 않고 어정쩡한 세력을 유지할 경우 한반도 방향으로 태풍의 길이 열린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물론 태풍의 길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로 밀고 밀리는 세력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아래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다.

차고 건조한 공기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할 경우 태풍은 일본 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약해지면 태풍은 우리나라 쪽으로 더 올라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미탁'도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더 커진다면 상륙지점이 좀 더 위로 올라가 남해안이 아닌 중부지역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현재까진 태풍 미탁이 제주도를 거쳐 남부지방에 상륙하고, 지난 태풍 '타파'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태풍이 접근하기 전인 30일 오후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오기 시작, 2~3일에는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최대 400㎜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바람도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는 1~3일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이 40~5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내륙에서도 강하게 불겠다.

태풍 미탁은 28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계속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17호 태풍 타파가 수온 28도 정도의 해역에서 발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태풍 미탁이 더 뜨거운 바다에서 발달하고 있는 셈이다.

태풍 타파 발생해역의 해양열량(OHC)은 ㎠당 60kJ 정도였지만, 현재 태풍 미탁 발생 지역의 해양열량은 ㎠당 120kJ이나 된다. 이는 태풍 미탁이 타파보다 바다로부터 2배나 더 많은 열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태풍 '미탁'은 올 들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7번째 태풍이다. 국내 기상관측 이래 1904년 이후 현재까지 한해에 태풍이 한반도에 7번이나 영향을 미친 경우는 1950년과 1959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해 올해는 60년 만에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에 가장 늦게 영향을 미친 태풍이 1906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태풍이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선박 어망 제거 민간잠수사 갑자기 사망
## 완도해경, 구조업무 민간에 떠넘겨 논란

완도에서 선박 스크루에 걸린 어망을 제거하던 40대 민간잠수사가 갑자기 숨져 논란이다. 해양경찰이 인명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업무를 민간업체에 떠넘겼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9일 완도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10분께 완도읍 망남리 남서쪽 3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D호(222t·근해대형선망·승선원 10명)가 군산 어청도로 이동 중 스크루에 어망이 걸려 선장 강모(61)씨가 완도해경 상황실에 구조를 요청했다.

완도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고 어망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잠수사 4명을 섭외했으며, 새벽 3시 20분께 민간잠수사 A(49)씨가 1차 어망 제거 작업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한동안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으며, 이날 새벽 4시께 잠수사 B(47)씨가 입수해 의식을 잃은 A씨를 확인하고 연안구조정에 인양 후 완도 신전용부두에서 대기하던 119에 인계했다. 완도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민간잠수사 이날 새벽 5시 40분께 숨졌다.

해경은 "인명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선장에게 민간잠수사 업체를 연결해 줬으며, 민간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다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주와 어민들 사이에선 이 같은 해경의 구조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어민은 "항해 도중 스크루에 어망이 걸린 사고 역시 인명과 관련한 안전사고에 포함될 수 있고, 국민의 재산에 관련한 사고도 해경이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사고도 해경이 인명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핑계로 민간업체에 넘기고 감독하지 조차 않아 발생한 사실상 인재다. 해경이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광주 스쿨 미투' 교사 5명 벌금형…2명은 무죄

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이른바 '광주 스쿨 미투' 사건에 연루된 여자고등학교 교사 5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7명 중 A(59) 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2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4명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욕설과 체벌을 한 1명에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 교사는 2016~2018년 재직 중이던 광주 한 여고에서 여학생 다수를 추행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옷 끈을 만지거나 손에 깍지를 끼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58)씨는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거나 지각한 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씨의 혐의 중 청소 중이거나 수박을 먹는 학생들에게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랑 첫날밤에도 그렇게 빨리할 거냐"고 희롱한 것은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말이지만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물시계 만들기 집중 또 집중** 29일 광주시 광산구 국립광주과학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2019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물시계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음주운전으로 지인 사망케 한 60대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30일 새벽 3시 40분께 여수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지인 B(62)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원 인근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나와 노래방에 가는 것을 놓고 주차장에서 다퉜고, 승용차로 주차장에 쓰러진 B씨를 두 차례 넘고 지나갔다.

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뺑소니)치사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차로 B씨를 2차례 넘어 지나갔다며 살인 혐의를 더해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가족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이 친했고 그동안 다툼이 없었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몸싸움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동기·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데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처럼 살인죄의 유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조선대 신임 총장 선거 예정대로 치른다

## 강동완 전 총장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이 신임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내달 1일로 예정된 제17대 총장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 21부(수석부장판사 박길성)는 29일 "강동완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대 이사장이 지난 18일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강 전 총장을 총장 직위에서 해임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이사장의) 인사재량 범위를 넘은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총장 지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 전 총장 해임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조선대가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고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이 오로지 강 전 총장의 직무 수행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도, 이를 이유로 인사권자가 대학 행정 최고 책임자인 총장을 해임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반드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강 전 총장의 임기를 지난 2월 28일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을 결의한 점, 교수평의회는 임시교수총회를 열어 총장 신임 여부 투표 후 총장 퇴진을 위한 농성을 한 점, 교무위원회도 자진사퇴 촉구를 결의한 점 등을 보면 학내 구성원 중 상당수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 전 총장도 지난해 8월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의결에 따라 이사장에게 총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가 반환을 요구했던 점 등을 볼 때 강 전 총장도 올 2월 이후 신임 총장 선출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 26~26일 이틀간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사전 투표를 했으며, 내달 1일 본투표를 거친 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쳐 최종 당선인을 가린다. 다만 과반 투표가 없을 경우엔 선거 당일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가게 입구에 차량 세워놓자…짐수레 묶어 놓고 자물쇠로 잠가

쌍나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입구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운전석 손잡이에 자물쇠로 짐수레를 묶어 놓은 40대가 경찰서행.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광주시 북구 우산동 본인의 가게 앞에 주차된 B(61)씨의 SM6승용차 운전석쪽 문 손잡이에 자물쇠를 이용해 짐수레를 묶어놨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 손잡이 부분 등이 긁혔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게에 무거운 짐들을 들여야 하는데 차량에 전화번호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고, 기다려도 차주가 나타나지 않아 순간 홧김에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 비고 |
|---|---|---|---|---|---|
| [아파트] | | | | | |
| 2019타경686 | 1 | 목포시 자유로97번길26, 8층 801호 [산정동,영성써니빌] 84.1513㎡ | 아파트 | 129,000,000<br>129,000,000 | |
| 2019타경1337 | 1 | 목포시 영산로761-2, 1동 9층 902호 [대양동,대양동영신그린빌] 59.936㎡ | 아파트 | 111,000,000<br>111,000,000 |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 | | | |
| 2019타경50308 | 1 |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181 17평 제시외 창고 등 79.3㎡ | 단독주택 | 20,562,550<br>20,562,550 |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
| | | 동소 181 271㎡ | 대 | | |
| 2019타경51219 | 1 |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 645 499㎡ | 대 | 156,684,000<br>156,384,000 | 일괄매각.제시외건물미등기,건축물대장미등재포함 |
| | | 동소 645 98.85㎡ 제시외 주택 24㎡,가추1식,동식물시설 1식 | 단독주택 | | |
| [대지/임야/전답] | | | | | |
| 2018타경9198 | 1 | 목포시 죽교동 500-1 248㎡ | 대 | 50,697,000<br>50,697,000 | 일괄매각 |
| | | 동소500-7 139㎡[부동산[죽교동500-7]현황건부지로사용,미등기건물들매각대상아님] | 전 | | |
| | 2 | 동소 559-11 56㎡[현황전및타인소유로탐문되는주택의마당으로이용중] | 대 | 6,328,000<br>6,328,000 | |
| 2019타경228 | 1 |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771-1 1398㎡ | 전 | 665,629,000<br>660,718,600 | 일괄매각.목록1,2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4제시외건물[미등기]포함매각 |
| | | 동소 771-3 479㎡ | 전 | | |
| | | 동소 775-1 4751㎡ | 잡종지 | | |
| | |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847 1162㎡ 1층주택,사무실60㎡ 화장실및보일러실8.4㎡ 2층주택60㎡ 화장실5㎡ 작업장595㎡ 작업장195㎡ 작업장88㎡ 제시외 사무실 26.4㎡ | 농산물보관창고 | | |
| | |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775-2 822㎡ | 잡종지 | | |
| 2019타경976 | 1 | 영암군 군서면 동호리 494 420㎡ | 전 | 5,880,000<br>5,880,000 |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 2 | 동소522-1 1467㎡[갑구1번1/2최상근지분전부.지분경매.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전 | 8,802,000<br>8,802,000 | 농지취득자격증명요.맹지임 |
| | 3 | 동소 724-1 357㎡ | 전 | 5,355,000<br>5,355,000 |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2019타경1108 | 1 |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204-2 608㎡[현황임야상태의맹지] | 전 | 13,376,000<br>13,376,000 |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2019타경1559 | 1 |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494-1 506㎡[현황대및일부도로.일부토지를인접지[492-1번지및495번지]에서마당으로점용중] | 대 | 6,072,000<br>6,072,000 | 매각에포함되는수목있음 |
| 2019타경1702 | 1 | 무안군 일로읍 구정리21-2 1451㎡[지적도상맹지이나북측일부가소폭농로로이용중] | 답 | 24,667,000<br>24,667,000 |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2019타경1917 | 1 |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75-1 658㎡[갑구4번4분의2김홍산지분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 전 | 5,593,000<br>5,593,000 |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묵전 |
| 2019타경1993 | 1 |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498 2324㎡[묵답상태이며,일부도로사재함] | 답 | 56,772,000<br>56,772,000 |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2묵전상태 |
| | | 동소 499-12 664㎡ | 전 | | |
| 2019타경2033 | 1 |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 293-2 1607㎡[갑구4번15분의1김현빈,15분의1김유빈,15분의1김희주각지분전부.본건위지상및인접지[약곡리294]에걸쳐매각제외비닐하우스소재] | 전 | 5,371,200<br>5,371,200 | 농지취득자격증명요.식재자미상제시외수목매각제외묵전 |
| 2019타경50568 | 1 |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838-14 120㎡[공유자지분전부.매각제외이동식컨테이너1동존재] | 답 | 6,720,000<br>6,720,000 | 현황전.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2019타경50841 | 1 | 신안군 자은면 송산리 산68-10 8265㎡[갑구4번2분의1나용화지분전부] | 임야 | 35,952,750<br>35,952,750 | 지분매각,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목록1,2맹지 |
| | | 동소 산68-4 8265㎡[갑구5번2분의1나용화지분전부,일부유지[웅덩이]] | 임야 | | |
| 2019타경51080 | 1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8 1284㎡ | 전 | 16,692,000<br>16,692,000 |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 | | | |
| 2019타경1153 | 1 | 목포시 신항로276번길6, 1동 5층 507호 [달동,달동엘타운] 39.2693㎡ | 오피스텔 | 85,000,000<br>85,000,000 | 미납공용관리비있음 |
| 2019타경51028 | 1 | 목포시 백년대로297번길13, 7층 704호 [상동,자유오피스텔] 37.37㎡ | 오피스텔 | 42,700,000<br>42,700,000 | |
| [기타] | | | | | |
| 2019타경1818 | 1 |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760-3 2399.4㎡ 제시외 창고 등 342.1㎡,기계기구 26식,본건기계기구 | 공장용지 | 1,197,238,600<br>1,197,238,600 | 일괄매각.제시외건물[미등기건물로,건축물대장미등재]포함.현황서상채무자대표이사진술상별지기계기구평가명세표상기호14,15냉동및냉장설비㈜신아가유치권행사중,그성립여부불명.매각제외이동식우산각,이동식주택소재 |
| | | 함평군 학교면 동항평산단길 34-55 795.2㎡[물건번호1:별지기계기구평가명세표상기호2레코르트멸균기,기호9떡갈비성형기,기호18원심분리기,기호19건조기,기호20고속분쇄기,기호21스텐드파우치충진지는현재'고장'으로탐문조사되어수리요.별지기계기구평가명세표상기호11Boiler등,기호23박스테핑머신,기호24후살균기,기호32엔터라인포장기등소재불명.기계기구매각제외] | 공장 | | |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10. 14.[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10. 21.[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말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9.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문형준